

## 일한고대·중세 사료의 비교

무라이 쇼스케

### 1. 머리말

한국에 남아있는 16세기이전의 문헌사료를 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속무정보감』 『사대문헌』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것들은 모두 국가사업으로서 편찬된 「관찬(官撰)」의 역사·문학·지리·법제의 책이다. 17세기 이후로는, 구규장각도서(현서울대학소장)에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을 비롯한 제관아의 일기나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sup>(1)</sup>

일본의 중세 이후 국가체제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전근대사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구가 존재하여, 그것을 지탱하는 관료시스템 속에서 사료가 생겨났다. 그 결과 그러한 사료는 편찬물의 형태를 띠고, 현저하게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은 왕조가 존속한 500년이상의 세월을 끈여지는 부분 없이 카바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팽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역사학의 사료라고 하는 관점까라 보면, 편찬 과정에서 가공이 더해짐으로써, 사서로서의 완성된 형태를 가지는 만큼 사료비판이 필요한 한계성을 지니게 되었다.

물론, 문인들의 시문집<sup>(2)</sup>이나 이순신의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 개인이나 집안에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작품들도, 관료조직 속에서의 지위나 활동을 반영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인이나 집안도 관료조직에서 적당한 지위를 점하는 것에 의해서 (혹은 과거에 선조가 그러한 지위를 점했다고 하는 역사적 기억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를 보증받아 온 것이다.

여기에 비해 일본에서는, 고대의 율령국가야말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그 내실을 보면 국가지배가 재지사회에 그만큼 깊이 침투해 있지는 않았다. 더구나 율령체제의 이완, 즉 중세로의 이행속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형핵화는 더욱 더 심해지고, 국가권력이 상급귀족·대사사(大寺社)·막부등의 「권문(權門)」에 분유(分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지사회 자신이 국가에 의한 권리보증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법적 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태어난 사료는, 당연히 국가적 관료제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권문」 별로 독자적 지배시스템을 반영하는 다양한 것으로, 게다가 재지사회측에 머물면서, 각 개인이나 집안의 권리보증에 대비하는 형태로 전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중세사료는 두드러지게 분산적·비계통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일기나 고문서등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으로(물론 사본의 경우가 많지만)대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차사료의 풍부함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일이위를 다룰 정도라고 생각된다.

## 2. 일본고대의 조선도래문물

일본의 여명기의 역사정보는, 조선반도와의 관계에 관련된 기록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자(한자)나 종교(불교)라고 하는 문명의 등불이,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나라현(奈良県) 텐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진구우(石上神宮)에 소장된 「시찌시도오(七支刀)」에 새겨진 태화(泰和)4년(369년)의 금상감(金象嵌)명문(銘文)에는, 적병을 퇴치하는 영력을 가진 이 검을, 백제왕이 만들어서 왜왕에게 보낸다고 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명문을 갖고 당시의 백제와 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본사에서 수수께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4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이타마현(埼玉県) 교오다시(行田市)의 이나리아마(稻荷山)고분에서 출토된 철검에 새겨진 신해(辛亥)년(471년인가?)의 금상감명이나, 같은 시기로 생각되는 구마모토현(熊本県) 키쿠스이정(菊水町)의 후나야마(船山)고분에서 출토된 철검의 은상감명은, 5세기 후반 웅략(雄略)천황(와카타케루)시대의 지방호족과 야마토국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사료다. 와카야마현(和歌山県) 하시모토시(橋本県) 스다하찌만진자(隅田八幡神社)소장의 인물화상경(人物画像鏡)에 새겨진 계미(癸未)년(503년이라고 하지만 이설이 많다)의 명을 포함해서, 일본에 있어서 문자사용의 극히 초기에 위치하는 것이, 조선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sup>(3)</sup>

나라시 동대사 정창원(東大寺正倉院)에 바쳐진 사와리가반(佐波理加盤)(동합금제의 그릇)에 부착되어 있던 고문서는, 이 기물이 신라의 전래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8세기경 신라의 재지사화를 이야기해주는 사료이다. 같은 정창원 화엄경론실에서 9세기 신라의 「촌락문서」가 발견되고 있다. 그 외에 정창원에는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이라는 각명(刻銘)이 있는 묵을 비롯해 신라제로 추정되는 비파(琴)·모전(毛氈)·순가락·접시·검 등, 신라관계의 문물이 많다.<sup>(4)</sup> 이러한 예처럼 조선반도에서는 소멸된 일차사료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남아있는 점이, 일본소재 한국사관계 사료의 큰 특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3. 일본고대문헌의 조선관계기사

일본 최초의 정사 「일본서기(日本書記)」의 오래된 시대 부분에는 「백제기(百濟紀)」 「백제신찬(百濟新撰)」 「백제본기(百濟本紀)」의 인용이 다수 보이는데, 이것들은 「일본서기」에 인용된 일문(逸文)으로서만 전해지는 책이다. 백제에서 성립한 원년대기를, 663년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인이 지니고 왜국에 망명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더해 (「일본」 「귀국」 「천황」 「천조(天朝)」의 용어 등), 「일본서기」를 편찬할 때 사국(史局)에 제출했다고 생각된다. 「백제기」는 근초고왕대부터 개로왕대까지 백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신공(神功)·응신(応神)·

웅략기에 몇개의 인용이 있다. 「백제신서」는 웅략·무열기(武烈紀)의 5개소에 인용된 데 불과하다. 「백제본기」는 무녕왕부터 위덕왕의 초세에 이르는 것으로, 계체(繼體)·흠명기(欽明紀)의 18개소에 인용되고 있는데, 그보다 이 2기는 대부분이 본서에 의한 기사로 채워져 있다. 13세기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보다는 오래된 기록이 조선반도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기」 등은, 조선반도 고대사의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일본의 고대국가가 확립하는 6세기말 이후, 일본과 신라, 일본과 발해사이에 왕래한 수많은 사자에 관한 기록이, 쌍방에 남아있는데, 일본측의 기록에 상세한 것이 많다. 『릿고쿠시(六國史)』나 『루이쥬우산다이각쿠(類聚三代格)』 속에 많은 관계기사가 들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에 도래한 사절이 일본의 문인귀족과 주고받은 한시문(漢詩文)이, 나라시대의 『카이후우소오(懷風藻)』나 헤이안시대의 『혼쵸오문즈이(本朝文粹)』 『간게분소오(菅家文草)』 『덴시가슈우(田氏家集)』 『후소오슈우(扶桑集)』 등의 문학작품 속에 남아 있다.

나라시대의 대표적 회화인 도리게다찌은나보오부(鳥毛立女屏風)(樹下미인도)의 하첩(下貼)문서에는, 752년 울령관인들이 신라사(新羅使)로부터 사들인 박재품의 리스트(買新羅物解)가 있는데, 이것과 일련의 문서는 다른 정창원 문서나 동경의 존경각(尊經閣)소장 문서 중에도 있다. 거기에는 향료·약재·안료·염료·금속공예품·기물(器物)·조도(調度)·불구(佛具)·황금·식료품(인삼·松子·봉밀 등) 등 다종다양한 품명이 들어 있다. 이들은 신라의 산물 외에, 당·남송·페르시아 등의 중계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신라가 경영하고 있던 광범한 무역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838년부터 847년까지 당에 건너가 각지의 명찰을 방문한 천태종 승려 엔닌(円仁)은, 방대한 여행기 『닛도오구호오쥬레이고오기(入唐求法巡礼行記)』 속에, 산동반도에 있었던 신라인 마을을 방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기술로부터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의 해상세력이, 당·신라·일본을 잇는 항로상에서 중흥의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4. 「도이(刀伊)의 입구(入寇)」의 관계사료

1019년, 여진족해적이 쓰시마(對馬)·이끼(壱岐)나 규슈북변을 침략해서 인민을 잡아간 사건이 있었다.(도이의 입구). 고려는 해적선이 귀송할 때, 조선반도 동안에서 병선을 출발해서, 피로인을 되찾아서 일본에 송환했다. 후지와라사네스게(藤原実資)의 일기 『쇼오유우기(小右記)』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고려선에 구출된 치쿠젠국(筑前国) 구라노이와메(内蔵石女)와 쓰시마국(對馬国) 다지히노아꼬미(多治比阿古見)라고 하는 두 여성의 견문기와, 그것을 교토니 전달하는 다자이후(大宰府)의 보고서들, 원사료 그대로 실고 있다. 견문기에는, 구조된 고려의 군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려진 배 안을 살펴 보니, 보통 배보다 훨씬 광대했다. 선체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선상에는 노(櫓)가 좌우에 4개씩 설치되어 있다. 노를 젓는 수부는 5, 6인

이고, 병사는 20인정도 타고 있다. 노(櫓)는 걸려 있지 않다. 다른 한 척은 노(櫓)가 좌우 7, 8개씩이고, 뱃머리에 철각을 대고 있다. 이것은 적선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배안에는 여러가지 무기가 설치되어 있다. 갑옷(鎧)·갑주(甲冑)·크고 작은 창·쇠갈퀴등이다. 병사가 변변 이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 또한 화약으로 돌을 날려서 적선을 쳐 부순다. 그리고 다른 배도 장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은, 고려의 군비상황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던 다자이후의 당국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려의 군제에 관해서 좋은 사료가 된 것이다(5).

사네스께는 친우였던 다자이후장관 후지와라다카이에(藤原隆家)가 편지에 붙여 보낸 이 견문기를, 일기의 뒷면에 적어 놓았다. 사네스께가 도이의 일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카이에와의 친분에 더해져서, 그가 때마침 도이와의 합전에서 공적을 세운 무사에 대한 은상을 심의하는 회의의 좌장(座長)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연이 겹쳐져서, 드물게 보는 일차사료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고려측의 기록은, 『고려사』 현종세가 14년월 병신(丙辰)조에

진명선(鎮溟船)병도부서(兵都部署)장위남(張渭男)등이 해적선 8척을 포획하여, 적이 납치한 일본인 남녀 259명을 보호했다. 공역령(供馱令)정자량(鄭子良)을 일본에 파견해서 그들을 송환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다. 고려에 있어서는, 이것도 전후에 몇번인가 있었던 여진족 해적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6), 일본에 있어서만큼 유니크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짧고 간략한 기사밖에 남지 않은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고려처럼 국가가 기록을 편찬해서 남기는 체계하에서는, 2여성의 견문기와 같은 생생한 재료가, 원형 그대로 전해질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 5. 왜구에 관한 사료

13세기 초발기(初發期)의 왜구에 관해서는, 1223년 고려의 금주를 침략한 것을 처음으로, 1290년까지 고려사에 몇가지 기사가 보인다. 고려는 몇번인가 사자를 일본에 보내서 왜구의 금압을 요구했다. 이 점에 관한 일본측의 사료는, 후지와라사다이에(藤原定家)의 일기 『메이게쓰기(明月記)』, 가데노고오지쓰네미쓰(勘解由小路經光)의 일기 『민게이기(民經記)』, 『아즈마카가미(吾妻鏡)』, 『학구랜쇼오(百鍊抄)』 등이 있는데, 『아오가타몬쥬오(青方文書)』에 『고려사』와 부합하는 문자가 있는 고문서가 있는 점은 흥미롭다.

1350년부터 본격화해서, 고려 인민에게 참고(慘苦)를 끼친 전기왜구에 관해서는, 사료의 대부분이 『고려사』 『고려사절요』 이하 고려측의 것으로, 그만큼 큰 국제적영향을 가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사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겨우 1381년에 무로마치막부로부터 규슈탐다이(九州探題)겸 오오스미국 수호(大隅国守護) 이마가와료오순(今川了俊)에게 보낸 지령서에, 『오오스미국의 악당들이 고려에 건

너가서 낭적(浪籍)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제지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네지메본쥬오(襍寢文書)』)

그런 가운데, 1367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서 왜구금압을 요청한 고려사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사료가 남아 있다(7). 나카하라모로모리(中原師守)의 일기『모로모리기(師守記)』에 답변의 여부에 관한 치열한 논의를 전하는 기사가 있고, 『다이고지본쥬오(醍醐寺文書)』 중에는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에 설치되어있던 정동행중서성이 일본국에 보낸 고문서가 있다.

전기왜구의 전성기는 1370년대 중반인데, 『고려사』속에서 이즈음의 왜구기사는, 중국정사의 「본기(本紀)」에 해당하는 편년적 서술인 「세가(世家)」부분이 아니라, 권말의 열전 제46이하에 있는 「신우전(辛禰伝)」 가운데서 보인다. 실은 「세가」는 공민왕23년(1374)부터 공양왕원년(1389)까지가 빠져 있고, 「신우전」은 본래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다.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을까.

이성계는, 1388년, 공민와의 손자 창왕을 폐하고, 왕가의 먼 혈통인 공양왕을 마음대로 왕으로 옹립하고, 결국 1392년에는 공양왕도 부덕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역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창왕의 부친 신우는 공민왕의 실자가 아니라,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정승(政僧) 신돈의 아들이라는 설을 퍼뜨렸던 것이다.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이씨조선 성립 후에 편찬된 고려사는 당연히 이성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신우왕·신창왕 2대의 치세를 기술하는 「세가」의 기사는 「叛逆伝第六」의 「신돈전」의 다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조작은 「신우전」 중의 왜구기사에, 사료로서는 아쉬운 점을 남기게 되었다. 「세가」에서는 각 기사에 원칙적으로 일부(日付)를 쓰고 있는데, 「열전」에서는 월까지에서 멈추고 일부는 쓰지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을 때는 월 10회 이상 있는 왜구기사에서 일부(日付)가 사라져 버렸다.

## 6. 15-16세기일한의 상호관찰기록

1420년 일본회례사로서 교토를 방문해서, 무로마치막부와 외교교섭을 한 송희경은 일본 왕래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기행시문집 「노송당일본행록」을 남겼는데, 그 양질의 고사본(16세기중반이전)이 도쿄도(東京都)분쿄오구(文京区)의 개인소장본으로 남아 있다.(8) 한시를 중심으로, 그것에 덧붙인 장문의 서(序)에 견문을 담은 이 서물의 체재는, 에도시대의 소위 조선통신사가 남긴 다수의 일본왕래기록의 전형이 되었다.

조선인의 일본·유구관찰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풍부하게 볼 수 있다. 사자로서 일본에 건너갔거나, 표류해서 일본이나 유구에 도착한 사람들로부터, 조선 정부는 일본·유구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물어서, 정식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471년에 조선의 영의정겸 예조판서(수상겸외상) 신숙주가 저술한 「해동제국기」는, 그러한 정보를 집대성해서, 대일본·유구외교에 대비한 핸드북이다(9). 신숙주는,

일본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그 정(情)을 살피고, 그 예(禮)를 어렵하고, 그리하여 그 마음(心)을 잡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선 정, 즉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식에 기초해서 예, 즉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면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안정된 교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객관적인 눈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10).

또한, 『해동제국기』에는 일본·유구를 묘사한 몇장의 지도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하카타(博多)상인 도안(道安)이 조선에 지참한 지도를 베이스로 한 것이다. 결국 그 지도에는, 유구·규슈·조선을 잇는 해역에 있어서 일본상인의 활동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내용은, 조선의 일본·유구정보 수집망에 걸림으로써 비로소, 사료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측의 조선인식은, 15세기에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조선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빈약한 것이었다. 『노송당일본행록』이나 『해동제국기』에 필적하는 조선관찰내지 조선연구는 남아있지 않다. 겨우 중세도 끝날 무렵 1539년, 오오우찌 요시다까(大内義隆)의 사자로서 서울을 방문한 손카이(尊海)의 짧은 도해기록이, 히로시마현(広島県) 이쓰구시마(厳島)·다이간지(大願寺) 보오부에(屏風絵)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손카이도카이닛기(尊海渡海日記)」). 그 이유는, 첫째, 중세 일본이 외교정보를 조직적·계통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시스템을 결여하고 있었던 점, 둘째, 중국과는 대등한 관계를 노리고 조선은 한단계 밑으로 본다 하고 하는 고대 이래 대외인식의 틀이, 조선에 대한 생생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446년에 성립한 『젠린고쿠호오기(善隣国宝記)』는 선승(禪僧) 즈이케이슈우호오(瑞溪周鳳)가 불교도의 왕래를 중심으로 외교의 추이를 더듬어, 무로마치시대의 외교문서를 수록하고, 후세의 외교담당자의 참고로 하기 위해 쓴 책이다(11).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해동제국기』에 대비할 수 있는 서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서의 주요한 관심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고, 조선은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즈이케이는 천축(인도)·진단(중국)·본조의 「삼국」을 세계의 구성요소로 하는 전통적인 불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조선제국을 중국의 부속물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 서문의 마지막에 「백제는 대저 진단(震旦)의 땅이다. . . . 이 기록에 신라·고려를 실은 것도 이것을 진단의 일부도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 7. 문록(文祿)·경장(慶長)의 役(임진·정유왜란)을 이야기해주는 종군자의 「覺書」

전근대 일한관계사상 최대의 사건인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 관해서는, 일한쌍방에 팽대한 사료가 남아 있다. 단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로 이용돼 온 것은, 일본측에서는 고문서나 일기 등의 일차사료, 한국측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편찬 사서가 중심이었다. 각 시점·각 지역에서 전투의 장소·규모·참가자 등에 관해서는 세부까지 해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조감적(鳥瞰的)인 구도의 해명에 머물러 있고, 전쟁에 관여한 개개인의 레벨에 있어서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경험이었던가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사료는, 전쟁에 지휘자로서가 아니라 일병사로서 참가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다. 『삿판큐우기자쓰로쿠고오헨(薩藩旧記雜錄後編)』을 펴 보면, 병사들이 조선의 전선에서 일본에 보낸 편지가 몇 통인가 보인다(오오시마타나야스(大嶋忠泰)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 등). 리얼타임에서 전쟁을 기록한 귀중한 사료인데, 전쟁의 극히 일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비해서 에도시대 초기 시마즈가(島津家) 사국(史局)의 요청에 의해서 번사(藩士)들이 제출한 「覚書」류는, 수십년 후에 기억을 더듬어 엮은 이차사료지만, 각자 나름대로 전쟁의 경험을 총괄한 것으로, 또한 상당한 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되는 서목은 편중돼 있어서, 활자화조차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사에서 판명된 리스트를 싣는데, 앞으로의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註】

- (1)이하의 서술은, 村井章介 「일본의 사료정리 사업과 한국관계 사료」 (한국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73輯, 1997년)에 의한 부분이 많다.
- (2)米谷均 「동대사료편찬소 소장 『일본관계 조선사료』」 (『고문서연구』 48호, 1998년)은 조선 문인의 시문집에서 일한관계 사료를 발췌한 사료집 소개다.
- (3) 斎藤忠 「고대조선문화와 일본」 (동경대학출판회, 1981년) 233-4항
- (4) 領木靖民 「고대 대외관계사의 연구」 (吉川弘文館, 1985년) 第二編二·三·四에 상세한 고찰이 있다.
- (5) 村井章介 「1019년 여진해적과 고려·일본」 (『조선문화연구』 3호, 1996) 66-67항
- (6) 池内宏 「만선사(滿鮮史)연구 중세 第一冊」 (吉川弘文館, 1933년) 318-312항
- (7) 中村榮孝 「일조관계사의 연구 상」 (吉川弘文館, 1965년) 의 「六 『태평기(太平記)』 에 보이는 고려인의 래조(來朝)-무가정권 외교접수 발단-」
- (8) 村井章介校注 「노송당일본행록-조선사질이 본 중세 일본-」 (岩波文庫, 1987년)
- (9) 田中健夫訳注 「해동제국기-조선인이 본 중세의 일본과 유구-」 (岩波文庫, 1991)
- (10) 河宇鳳 「신숙주와 『해동제국기』-조선왕조 전기에 어떤 「국제인」의 영위(營爲)-」 (大隅和雄·村井章介編 「중세 후기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山川出版社, 1997년)
- (11) 田中健夫編 「선린국보기·新訂속선린국보기<역주일본사료1>」 (集英社, 1995년)